

현대 중국 지식인의 공공영역 논의를 통해 본 담론 네트워크 합의

최 은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¹⁾

1. 들어가는 말

개혁개방이래 시장경제의 도입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상업화를 진행해 나갔으며 이에 따라 이전과 비교해 국가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탈정치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사적영역 혹은 개인영역이 자본주의의 전개와 함께 사회전반에서 출현했다. 1980년대는 이러한 개인의 주체적 발견의 시대라 할 수 있고 더불어 개인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다. 1990년대 역시 지식의 소비자로서의 대중이 출현하면서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지식의 생산자로서 독점적 위치에 존재하던 지식인들이 주변화 되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인문정신논쟁도 전개되었다. 이렇게 전환기 중국에서는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국가 사회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을까. 국가에 독립된 사회의 영역은 형성 가능할 수 있는가. 또 실제 국가의 압도적 힘에 대해 대항할 담론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사회적 영역, 대항담론의 공간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 계몽의 논의 속에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고되기 시작했고 실제 서구사회에서 논의되던 공공영역(Public sphere)에 대한 논의가 중국에서도 도입되어 이념적 차원에서 또한 현실적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와 중국의 국가사회의 관계를 동일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적 맥락으로 이러한 공공영역의 논의와 적용의 부절적합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러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환기 중국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인식의 차이와 공공영역을 통해 중국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 때문이다.

여전히 국가가 사회를 압도하고 있지만 경제개혁의 진행과 세계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변화의 요소는 사회적 공간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기 때문이다. 80년대 이래 과거와 비교해 국가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가면서 국가에 대항할 새로운 담론의 영역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형성되어 나가면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강력한 국가권력에 대한 독립된 영역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공공영역의 형성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대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다시 증폭되었다. 1992년 남순강화 이래 권위주의적 정권체제를 지속해 가면서 시장경제를 확대시켜 경제적 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온 중국은 90년대 후반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에 진입했다. 인터넷의 보급은 국가와 시장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동인이 되었다. 즉 인터넷을 수단으로 담론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되면서 인터넷의 소위 ‘공공영역’이 사회문화 뿐 아니라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잠재력을 지닌 공간으로 주목된 것이다. 특히 2003년 인터넷 매체를 매개로 한 손지강 사건을 기점으로 인터넷의 공공영역이 중국의 정치사회변화를 이끌 중요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목도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공공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이념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와의 관련성 및 민주화의 가능성 여부 등의 거시적인 부분을 다루는 연구에서 공공영역의 중요한 수단인 매체의 문제를 다

1)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1).

루는 연구까지 다양하다. 인터넷 공공영역 역시 이러한 매체의 문제로 연구되고 있다. 이는 공공영역의 중국에 대한 적용의 가능성 여부와 한계에 대한 연구의 성격을 띠며 실제 공공영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연구들이 논의가 제기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배제된 채 적용의 문제나, 존재의 규명에 치우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들을 포괄하여 왜 중국에서 공공영역의 문제가 논의되었는가를 중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중국에서 논의되는 공공영역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와 공공영역 논의의 내용을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매체의 문제와 관련지어 살펴보므로써, 중국에서 담론형성의 네트워크 형성과정과 특징의 일면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전환기 중국사회에서 지식인과 대중 및 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나갔는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2. 개혁개방이래 시민사회 논쟁과 공공영역 개념 논의의 변화

공공영역을 주제로 하는 연구의 추이를 CNKI의 주제 검색을 실시한 결과 개혁개방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10년간은 공공영역에 대한 논문은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없고 1990년에서 1999년까지 18개, 2000년 이래로 1152개의 논문과 글이 있는 것으로 검색된다.²⁾ 그러므로 많은 논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주제가 2000년 이래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2000년 이래의 추이는 어떠한가. 1999년 9개의 논문에서 2004년 34개, 2005년 71개, 2006년 114개, 2007년 132, 2008년 142개로 2005년 늘어나다가 2006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2010년 174개, 2011년 184개 그리고 2012년 현재까지 118개로 비슷한 수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00년 이래 공공영역에 대한 지식인들의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2006년 이래로 일정한 연구영역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대부터 공공영역이라는 개념은 철학, 정치학, 사회학, 신문매체학 등 관련 학과의 연구의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학술회의의 공공주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

그렇다면 1990년대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연구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주요한 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공공영역 논의는 시민사회이론의 맥락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이래 여러차례의 논쟁을 일으킨 시민사회이론 관련 논쟁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민주주의 문제 등을 내포한 것이었다. 우선 90년대 이래 경제개혁에 따른 도시 상공업자의 출현 등이 체제 밖의 공간에 등장했다는 현실인식이 논의를 불러일으킨 배경이 되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문제를 인식하고자 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것이었다.

시민사회론은 해외 중국 연구학계와 중국의 사상계 모두에서 동시에 전개되었는데 시간적으로는 해외 중국학계가 시민사회의 토론을 조금 더 먼저 진행했지만 해외와 중국 모두 중국에서 시민사회나 공공영역이 존재했는가를 규명하려는 문제의식에서는 동일했고 주로 청말 이래 사회에서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중화권학계에 도입된 후 여러 가

2) CNKI 2012년 11월 7일 현재

3) 袁光鋒, 「國家,市場,社會與網絡化社會中的公共場域建構——以“網絡公共領域”的研究為線索」, 來源: 人民網-傳媒頻道, 2012年02月23日15:36

지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대만에서는 민간사회로 번역되어 국가권위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이론이 될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은 간양(甘陽)이 1991년 민간사회로 번역을 했지만 대항관계로 보지 않았고 梁治平도 민간사회와 국가를 조화와 합작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것은 대만과 중국에서 각각의 맥락에 따라 개념의 수용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0년대 중국은 과거와 비교한 국가세력의 약화에 주목하면서 자연스런 사회세력의 성장 가능성으로 기대했다. 王紹光과 胡鞍鋼의 1993년 <중국국가능력보고>나 孫立平의 연구는 모두 10여년의 개혁을 거쳐 정부의 통제범위와 통제력이 약화되어 사회의 자주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은 鄧正來와 景躍進이 『中國社會科學季刊』 창간호에 발표한 「建構中國的市民社會」라는 글에서 비롯되었다. 1992년 중국개혁이 새로운 조정기를 맞아 국가와 사회관계의 양호성을 살펴본다면 시장경제가 사회적 자주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았고 제도적 규범만 갖춘다면 시민사회의 이익집단이 정치생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한 이유는 80년대 중국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사적영역이 생겨나게 되고 국가의 전면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1989년 이후 지식인들은 개인과 국가의 범주로는 강대한 국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때문에 시민사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다.⁴⁾

90년대 시민사회론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점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국가에 독립된 사회관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가 침투된 사회라는 관점이었다. 전자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정치와 경제의 분리이며 시민사회는 경제과정이 분리된 결과로서 시민사회는 이 때문에 정치적 성격의 밖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公共論叢』 잡지에 모인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의 주장에서 대표되는데 張曙光, 盛洪 등의 글 「市場邏輯與國家觀念」이라는 글에는 “시장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며 국가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다. 시장논리는 개인권리가 자유롭게 교역하는 것으로 개인자유와 확립과 보장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권리의 보호를 기초로 그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개인의 독립지위와 자유권리가 확립된 국가체도가 민주제도”라고 설명되었다. 劉軍寧은 공공이익에 대해 시장에서 사적 이익은 공적이익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하므로써 시장질서가 자연조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임무는 시장질서의 유지를 돕는 것이 되어 소정부, 대사회를 주장했다. 汪丁丁은 시장은 나누어진 지식을 소통시키는 작용을 하며 사유재산권이 기초가 되는 자본적 질서가 자본주의에 가장 합당한 질서라고 했다.

당시 하이에크(Hayek) 영향을 받았던 이들은 시장질서를 사회질서라고 보았고 이는 국가에 독립된 별도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해석은 사회와 정치를 서로 분할시켜 국가는 공적 영역, 정치적 범위이고 사회는 개인적 영역으로 정치가 간섭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바로 민주화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중국사회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패와 불공정의 문제가 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즉 시민사회가 발전하면 다원적 민주정치의 사회적 기초가 되고 국가체제가 저절로 제어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저절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王紹光, 張汝倫, 汪暉는 이러한 시민사회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王紹光은 「關於市民社會

4) 許紀霖, 「從範型的確立轉向範例的論證, 國家與社會」, 305-306쪽, 成度, 『有關市民社會與公共領域的論爭』, 二十一世紀雙月刊 總第88期, 2005年 4月號, 34-35쪽.

的起點思考」에서 중국사상계는 시장경제관계로만 시민사회가 지닌 중요한 부분을 규정해버리고 시장경제로 인한 시민사회를 사적인 경쟁장소로 국한시켜 버렸다고 한다. 즉 중국은 경제적 유리함을 지니면 정치적 발언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지위가 낮은 민중은 정치참여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경제민주화의 과정을 겪지 못한 상태에서는 왜곡된 정치민주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張汝倫은 시민사회는 민주정치를 실제 보장할 수 없는 투쟁의 장소이며 역사적 산물이라고 보았고 汪暉도 시민사회와 국가간 관계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개혁은 국가가 주도했고 시민사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국가권력이 이미 이 시민사회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 중국사상계가 만들어낸 시민사회의 자발적 질서란 실체는 인위적 결과이며 정치와 경제영역 분리의 노력결과이나 실제 성립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관은 국가에 독립된 사회가 아닌 권력이 침투된 사회로 보는 사회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는 비록 경제활동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지만 정치적 범위와 개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시민사회는 정치권력과 경제 내지 문화권력의 상호교차적 사회구조로 형성되는 것이고 그 내부도 복잡한 권력관계로 구성되며 이 때문에 사회는 자족적인 사적 영역일 수 없고 서로 투쟁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는 정치적 개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장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론에 나타난 국가 사회관의 다른 이해는 ‘공공영역’ 개념의 해석에도 연장된다. 즉 하버마스(Habermas)의 『公共領域의結構典型』이 1989년 중국에서 출판된 이후 해외 중국학계든 중국내 학술계에서든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을 동일시 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공공영역(public sphere)은 국가와 시민사회 간을 경계 짓는 영역을 의미한다. 공공영역의 원칙은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여 이성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며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서구의 고대사회에서부터 절대왕정시기까지 공공공간이라는 개념이 한나 아론트(Arendt)에서 비롯되었던 것에서 착안하여 하버마스(Habermas)는 역사적으로 부르조아 공공영역이 형성된 것을 증명했고 또 이러한 공공영역 형성의 중요한 수단인 매체가 상업화되어 공공성 확보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서 공공영역 개념이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공영역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출현한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 영역으로서의 개념틀이라는 두가지 성격을 지닌다. 즉 현실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이상적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도 하버마스가 정의한 개념의 공공영역이 명확히 존재했다고 증명하기 어려웠고 중국 역시 서구와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영역의 존재의 논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98년 汪暉는 『문화와 공공성』을 출판하고 공공영역이 당대정치생활에서 갖는 의의를 논의했다. 汪暉는 하버마스가 공공성에 대한 관점으로 자유주의의 보편주의 권리이론을 비판하였고 보았다. 그는 Arendt와 하버마스의 논리를 가져와 현대사회의 공사영역의 분리에 따라 시장원칙이 점차 사회를 지배하여 사적영역은 사회영역으로 전화했고 이러한 시장원칙이 사회의 주도적 원칙이 된 것 자체가 공공성이 상실되고 정치가 소수엘리트에 의해 장악되고 국가와 민중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진정한 민주가 쇠퇴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공영역에 대중들이 참여할 기회를 잃었고 공공성이 그러므로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공공영역은 허위의 공공영역이라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공공영역을 언급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이다.⁵⁾

그는 공공영역이 담보해야 할 공공성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공공영역은 권력층에 의해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성립되는 특성이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부르조아계급 역시 부르조아 계급이 공공영역을 주도하며 이러한 상태를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체제 합법화 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중국의 개혁개방이래의 공공영역은 부르조아 계층 혹은 이익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계급적 특성이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영역의 중요한 수단인 매체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매체를 둘러싼 공공영역내에서 계급투쟁이 필요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성은 대중의 진정한 평등의 문제 없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보고 공공영역을 투명하고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했다.

왕후이는 매체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의 통제를 언급하기 보다는 상업화의 문제를 중시했다. 즉 매체의 공공영역을 장악할 이익집단들의 담론 속에 민중의 실제적 문화와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다만 상업적 대중문화 소비문화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공영역을 형성을 하기 위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문제가 공공영역 논의의 주제가 아니라 매체의 작동내부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평등성에 주목하자고 주장했다. 억압받는 계층의 목소리가 배제된 공공영역의 공공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

許紀霖은 “...어떠한 문화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졌다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종의 공공영역이라는 것이다.”⁷⁾ 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도 사대부가 황제체제 밖에서 자신들의 여론을 세웠고 동한의 태학에서 명말의 동림서원까지 모두 고대의 공공영역이었다라고 하여 국가권력의 밖에 있는 공공영역의 존재자체에 대한 규명 및 중국의 공공영역의 특성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더 중시했다. 즉 국가권력의 약화되지만 사회영역이 덜 발전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식인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회구조라면 지식인들의 공공영역에서의 관여와 참여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⁸⁾

이외에도 공공영역개념은 서구특정 역사단계에 사회전체의 변천과정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서구자유주의모델 하의 자본가계급의 공공영역이라는 것으로 서구공권력 즉 국가와 경제사회관계의 이론학설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공공영역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역사에서 구체적인 국가, 시장, 사회관계속에서 살펴져야 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어떤 이념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⁹⁾

중국을 방문하기도 한 하버마스가 2004년 <공공공간과 정치공공영역- 나의 두 가지 사상주체의 생활역사근원 공공공간과 정치공공영역>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이론체계의 형성발전의 근원을 소개하면서 공공영역은 민주정치의 실제상황을 계층하게 하는 용도가 된다고 주장하게 되자 민주화의 척도로서 공공영역은 더욱 주목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공영역논의는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역을 통해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으로 심화된 것이다. 즉 시민사회를 공공영역과 동일하게 인식한다면 공공영역의 개념과 이념을 중국에 적용했을 때 비판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왕휘 등은 하버마스의 공공영역론의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 보편문제 특별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타락문제를

5) 石登, 「国内学界关于公共领域的研究综述」, 『新闻世界』, 2011-08-10, 299쪽

6) 汪暉, 『別求新聲』, 北京大學出版社, 2010, 338쪽

7) 近代中國的公共領域, 士林, 2003.2

8) 王妍, 『我国公共知识分子与公共领域建构研究』, 暨南大学, 2010-04-01, 5쪽

9) 夏倩芳, 黃月琴, 2008

지적하려 했다. 즉 중국의 시민사회 이해는 사회주의를 맹목적으로 비판해 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민주가 지닌 문제를 소홀히 하여¹⁰⁾ 공공영역논의가 중국시장화와 관련된 시민사회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가 심화되었지만 정치개혁에는 진전이 없었다. 순리펑은 90년대 시장화가 민주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심각한 사회분화만 초래했으며 정치자본이 시장에서 권력을 강화하여 경제자본을 획득하여 엘리트층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개혁과정 중 형성된 중산계급도 민주화의 주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이익집단에 불과하여 정치개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공공영역 개념이 논의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공공영역 개념은 당대 중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허위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문제에 대한 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공공영역의 주요한 수단인 매체가 상업화되면서 권력과의 충돌이나 협력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자 이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영역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등장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공공영역논의가 학계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인터넷과 공공영역을 관건사로 찾아보면 중국기간망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검색되는 논문은 130편이고 비록 공공영역이라는 표제는 없어도 문장 내에서 이미 공공영역이론을 사용하고 있다. 광의로 말하면 인터넷 정치참여, 인터넷여론감독 등도 인터넷공공영역연구의 관련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폭민, 언어폭력 등의 연구도 인터넷 공공성과 관련이 있는 연구라 할 때 공공영역 논의는 이미 중국사회를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온라인 포럼(논단)은 기존의 매체의 공공영역의 기능과 등치하여 주목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논단을 포함하는 온라인 공간을 공공영역으로 간주하는 경우와¹¹⁾ 사이버공간의 공공여론의 힘을 고려하면 인터넷은 사회의 주도적 미디어가 될 것이고 중국에서 이상적인 공공영역을 만들게 이끌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¹²⁾

반면 자유로운 토론의 공간을 만들었지만 꼭 이것이 공공영역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¹³⁾ 즉 가상공간에서 정보는 개인을 분산시키며 온라인 담론의 수준도 상업적인 수준일 뿐이라는 것이다.¹⁴⁾

그러므로 현재까지 공공영역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공공영역은 정보기술의 힘을 통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현실주의와 공공영역은 이상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유토피아주의적 경향을 띠는 형태이므로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시장, 사회의 분석 중 중국의 상황에서 공공영역의 이론적 특징을 경험적으로 분석해야한다.¹⁵⁾

이상의 중국사회에서 전개된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논의가 지니는 함의를 살펴본 결과 공공영역의 논의는 시민사회론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공공영역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필요성 속에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3. 중국의 매체개혁과 공공영역의 형성

10) Arif Dirlik

11) Schules, 2005; Dahlberg, 2005; Fung, 2000; Kellner, 2004

12) Luo, 2005.

13) Benkler, 2006

14) Dahlberg, 2001; Franko, 2005; Papacharissi, 2002; Katz, 1997; Luke 1998

15) 袁光鋒, 앞의 논문

공공영역 논의는 주로 매체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또 토론을 거쳐야 시간과 공간의 확산이 가능하여 공공영역을 형성한다. 매체의 중개가 없다면 공공논단은 지역적이거나 국부적 층차에 머물고 만다. 또한 매체가 공공의제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래야 공공영역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이래 매체개혁을 통한 매체의 상업화의 문제 및 인터넷 신매체의 등장이 초래한 변화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가 공공영역 논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영역을 사회대중이 접촉하는 관념과 정보라고 정의할 경우 어느 사회든 모두 공공영역을 지니고 있다고 보게 되며 서구와 중국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공공영역은 매체와 등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⁶⁾

중국에서 매체는 1980년대 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관여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개혁에 참여하면서 외국의 문화와 관념을 수입하고 개혁의 논의를 설파하면서 중요한 담론형성의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적 지식인과 체제가 결합한 개혁방안이 1989년 실패로 끝나면서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공공영역이 변화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매체기구는 대개 국가가 여전히 소유주로서 사영기업이 TV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국가가 소유한 방송국에서만 방송을 할 수 있고 개인기업가가 도서를 발행해도 국유 출판사에서만 합법적인 도서출판이 가능하다. 잡지소유제도도 내용생산과 발행의 영역은 자유롭지만 출판은 출판사에서 하는 것으로 매체기구가 기업적 경영관리를 하지만 소유는 국가이므로 고용과 해고, 내용출판과 방영의 허가과 금지 등은 상급정부와 당조직이 관여할 수 있는 체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를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은 분명하지만 기업적 경영으로 이윤을 얻어야 하는 매체기구의 상업적 성격이 시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작동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이 있다.

중국매체의 상업화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현저히 나타나 매체를 기업화 하는 것 이었는데 이로 인해 매체기구는 국가의 행정보조를 받는 대신 시장의 상황에 맞추게 된다. 매체는 시장의 상황에서 이윤을 획득할 광고수입을 통해 확장되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도태되었다. 2000년 이래 광고수입이 6억 달러를 초과하는 중앙방송국의 경우는 소유주는 국가이지만 운영방식은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였다. 매체의 수입은 광고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1990년 25위안이던 광고소비가 2000년에는 1,856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광고수입은 TV와 신문잡지라는 면에서 광고의 발전과 매체의 발전이 상호작용을 통해 매체의 상업화를 촉진해 나간 것이다.

매체의 분산화 관리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 매체가 자주권을 지니는 방향으로 나아가 1990년대 중기 이래 新華書店의 독점적 도서발행이 아닌 사영서점들이 도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1995년에는 국외영상물 수입조례의 변화에 따른 외국영상물의 중국내 수입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체가 다양화되고 양적으로도 급성장을 하게 되었으나 국가 주도의 매체개혁이었다.¹⁷⁾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공공영역 형성을 가능하게 했는가. 1994년 이래의 인문정신 논쟁에서 <독서>, <문예비평>, <신화문적>, <중국사회과학>, <철학연구>, <인민일보>, <문화

16) 麥康勉(Barrett McCormick), 「中國媒體商業化與公共領域變遷」, 『二十一世紀雙月刊』, 2003年 6月號 總第77期, 27쪽.

17) 매체개혁의 성격과 매체의 다양화 및 수적 증가에 대해서는 「중국매체의 성격과 함의-담론 생성과 확산의 기제」, 『중국연구』, 2011.11 참고

보>, <광명일보>등 30여개 이상의 잡지에서 張賢亮, 王蒙, 趙毅衡, 陳平原, 張承志 등이 참여한 이 논쟁은 매체의 상업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였다. 즉 인문정신이 상업화로 인해 약화되고 논의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전통매체의 상업화 개혁과정에서 지식인의 논의 공간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매체의 상업성은 저급한 대중의 상업문화만을 담보할 뿐이라고 비판되었다. 즉 점차 확대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대조적으로 지식인들의 담론 공간은 축소되었고 주변화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매체개혁이 국가 주도의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매체의 상업화 자체가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과정에서 공공영역 형성 가능성을 만들어 낸 측면도 존재한다.¹⁸⁾ CCTV뉴스로서 1994년 4월 1일 13분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焦點訪談 프로그램을 보면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시청자는 매일 2-2.5억명이 시청했던 측면에서 주목된다.¹⁹⁾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이 국가의 중대한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아닌 저급 관료의 권력남용문제에 대한 고발의 차원이라고 할지라도²⁰⁾ 대중의 관심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단순한 정부의 대변도구가 아닌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공공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매체시장의 경쟁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했고 또한 이러한 시장화의 전개 속에서 매체도 점차 편집에서 자유와 독립을 지니게 되었다.²¹⁾

매체의 시장화가 초래한 변화는 신문 「남방주말」의 영향력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남방주말은 1984년 2월 창간된 이래 32판의 종합주간신문으로 성장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행량과 광고수입 역시 커졌다.²²⁾ 체제의 보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또한 자주적 공공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양화된 공공언론을 추동시킨 것은 확실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1984년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오락성 문화신문의 성격으로 사회를 반영하고, 개혁에 복무하며, 생활에 근접한다는 것을 방침으로 했는데 1988년 9월 이래 사회문제 분석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상해, 북경에 분점을 두고 1992년 8판으로 확대했고 남순강화 이후 1993년 제 507기부터는 백 만부 이상 팔리게 된다.²³⁾ 특히 1995년부터 신속한 보도와 민생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의 불공정을 폭로했고 NGO인 <녹색화평> 등 사회조직과도 실질적인 연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도 연계를 맺었다. 2004년 11월 16일 <녹색화평>이 云南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남방주말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12월 16일 남방주말이 보도를 한 뒤 녹색화평이 北京青年報, 中国日報, 中国青年報, 東方衛視 등 매체에 확대 보도를 한 것도 남방주말의 사회적 보도와 여론주도의 역할에 기인한다.²⁴⁾ 남방주말의 자유담론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루어지는 토론의 장이다. 주로 정치, 법률, 공민권, 반부패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매체의 개혁과 상업화 과정에서 매체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려 하면서 미약하지만 공공영역을 확장해 나가려는 변화의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매체 체제 개혁이후 정식소유제와 암묵적 소유제간의 불명확한 한계가 조성되면서 시장의 요구에 따라 매체기구가 국가의 통제의 범위를 조절하며 이윤을 확대해 나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매체의 상업화는 매체의 다원화를 초래하고 보다 다양한 논의의 공간을 형성하게

18) 麥康勉(Barrett McCormick), 앞의 논문.

19) 李小萍Li Xiaoping, 2002.

20) 趙月枝

21) Chunzhi Wang, Benjamin Bates, *Online Public Sphere and Democracy in China*, 2008.6

22) 袁琳娜, 「南方週末與公共領域建構—以南方週末三次轉形爲線索」, 『新聞世界』, 2011. 8期

23) 周志懿 黃逸秋 彭波, 「理想照耀现实南方週末二十五年成長史」, 『傳媒』, 2009. 8.

24) 曾繁旭, 「NGO媒体策略与空间拓展——以绿色和平建构“金光集团云南毁林”议题为个案」, 『開放時代』, 2006年第6期

하여 개혁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공공영역의 형성 가능성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체의 공공적 논의의 내용은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는 매체 중 신문을 보면 과거 당의 기관지 보다는 샤오바오(小報), 완바오(晚報) 등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주요한 내용은 사회주의이데올로기 담론이 아닌 개인주의, 소비욕구 등의 상업적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자유주의, 세계화의 내용이었다.²⁵⁾ 잡지의 경우도 여성잡지와 스포츠 잡지 등의 판매가 급증했는데 이는 개인 삶의 계획을 수립하는 자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주적인 개인들의 영역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들이 형성하는 공공영역의 전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1990년대 이래 주도적인 매체였던 TV에서도 대중이 수동적으로 반응했던 과거와 달리 프로그램 선택에서 개인 문화소비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역시 개인 영역의 생성과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대중의 자주적인 매체선택과 매체 내용의 독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도 의미한다.²⁶⁾ 그러므로 매체의 중요한 담론은 소비와 더불어 민족주의였고 이는 현대화와 세계화의 동시 진행 속에 내재된 대중의 욕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²⁷⁾

4. 인터넷 공공영역의 담론 형성 네트워크

1996년 인터넷이 중국에 도입이 되었다. 인터넷은 일방적인 전달자로서의 전통매체와 달리 대중의 참여가 용이하며 BBS등을 통해 공공토론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공공영역 논의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²⁸⁾ 이는 하버마스가 말한 공공영역이 갖춰야 하는 개방적 공간, 대중의 접근용이성 등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인터넷의 매체의 방식으로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공공영역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상호작용과 무제한의 정보제공으로 특징되는 새로운 매체로서 인터넷은 아마도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일반 대중이 정치적 사안과 대중적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포럼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이 다른 매체보다 더 진보적으로 여겨진 이유는 가상공간의 제공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네트워킹의 초기 단계에서의 전자게시판 BBS(bulletin boardsystems)가 그러했다. 다중들이 다양한 소스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므로써 유지되는 가상공간은 현실세계의 공공영역의 확장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현실의 공공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주장된다.²⁹⁾ 그러므로 인터넷의 공공영역은 매체의 한계를 극복한 이상적 공공영역으로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매체의 환경과 동일하게 인터넷 역시 정부의 통제와 관리를 받았다. 정부는 정책상 국내인터넷관련 법령의 제정과 반포, 웹관리자 사용과 관리 법규를 제정했고 경제적 활용의 측면에서만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했다.³⁰⁾ 뉴스와 관련해서도 중국정부는 인터넷 관련 규칙을 반포해서 인터넷의 뉴스보도는 관방매체에서 보도된 내용만 신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네티즌(網民)은 더 많은 정보 제공의 통로로서 인터넷을 활

25) 레이치리, 샤오바오의 행간과 이면, 임춘성 왕샤오밍 역음, 『21세기 중국의 문화지도』, 현실문화, 2009, 167-198

26) 麥康勉(Barrett McCormick), 31-32쪽.

27) 백지운, 「전구화 시대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 황해문화, 2005가을, 203-11쪽.

28) 온라인 공공영역의 기본적 구조에 대해서는 이광수,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식확산」, 『현대 중국의 지식생산구조』, 2012, 참고.

29) Tang&Shi, 2001

30) 郝曉鳴 李展, 「互聯網在中國大陸的發展與公共領域」, 新加坡南洋理工大學傳播學院, 7쪽

용하면서 횡적 소통구조를 형성해 나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통제정책에 대항하여 정보를 소통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PC방은 적은 금액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CCN, BBC 등 해외매체와 중국의 반체제지식인의 정치사이트 등 방화벽 방식의 정보차단 장치로 금지된 사이트를 제외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고 실제 법규처럼 심한 단속을 받지 않는었다.

과거 전통매체가 전문적 지식인이 위주가 되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제한된 논의 공간이었다는 점을 비교하면 인터넷의 네티즌은 대개 초기에는 남성위주의 고등교육자, 도시의 중산층에서 점차 청년층 대중으로 확대되어 나갔고 급기야 급속한 수적 증대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등한 참여원칙이 강조되는 공공영역 형성 공간으로서 더 적절하였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CNNIC에 따르면 2008년 2.98억 명에서 2010년 12월 4.58억 명, 보급률은 34.3%로서 개방적 여론 혹은 담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 네티즌의 주목을 끈 초기의 여론공간은 전자게시판 BBS로서 공공영역은 이러한 논란 성격의 사이트를 통해 주로 설명되어 왔다. 전체적인 중국의 온라인 공간 운용상황 보고에 의하면 정치관련 논란의 비중은 큰 편으로 전통매체와 다른 점으로 분석된다.³¹⁾ 즉 130만개의 인터넷 논란이 있고 그 규모는 세계 1위이다. 이러한 논란은 매체의 소유주체에 따라 인민망의 強國論壇³²⁾과 같은 정부소속매체, 상업망 소속의 바이두(百度), 天涯社區나 각 대학의 BBS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고 내용전달의 특성상 개인 블로그나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위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외 인터넷의 QQ, MSN 등의 사용자 9억 명이 정보를 공유 전달 확산한다면 인터넷 공공영역의 규모와 강도는 전통매체의 전파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인민망여론동향감측실이 2009년 77건의 영향력이 컸던 사회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촉발된 사건이 전체 사건의 30%를 차지하는 23건이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³³⁾

논란의 공공영역으로서의 기능여부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1995년에서 1999년까지는 전국적 뉴스가 상당부분 인터넷에 올라 있었고 논의는 대학의 BBS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³⁴⁾ 이런 상황에서 전통매체로서 전국적 관영매체 人民日報가 인터넷 논란을 가장 처음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의가 있었다. 즉 다원성을 보장해야 하는 논란의 성격이 관영매체의 논란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강국논단은 형식상으로는 공공영역의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중국의 내외정치외교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전개하고 서로 의견의 충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토론은 국가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민의를 형성하기에는 요원했다.³⁵⁾ 이는 강국논단의 논단편집부가 편집한 “網友之聲”의 1999년 5월의 90편, 2000년 12월의 상반기 보름 동안의 134편의 글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란은 공공영역으로서의 기능 보다는 대중이 불만정서를 표출하게 하여 오히려 현실의 돌출적 정치행위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 공공영역의 현실적 가능성을 논하게 된 본격적 계기는 2003년의 孫志剛事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여론을 통해 중국사회의 진보를 초래한 중요한 사건이며 매체

31) Yu, 2007

32) Zhan 2002, Wang2004, Liu2005

33) 李永剛, 「互聯网上的公共輿論及其生成机制」, 時間:2010-10-14 来源:文化縱橫2010年10月刊

34) 劉學紅, 1999, 9쪽.

35) 王君平, 「虛擬的網絡社區 現實的公共領域——淺談強國論壇對公共領域的重構或轉型」,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學報』, 2004年06期

의 공공성과 공공영역의 형성이 되었다는 지표로 여겨지는 사건이다. 湖北의 대학을 졸업한 손은 광저우의 회사로 일하러 갔는데 2003년 3월 17일 인터넷 카페에 가는 길에 거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구류 중 사망했는데 이를 2003년 4월 25일 『남방도시보』가 처음 이를 보도했고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후 법학자, 정치학자, 변호사들이 온라인 논쟁에 참여했고 5월 14일 세 명의 변호사들이 중앙정부가 도시법의 빈민 부랑자 소환법과 구류수단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2003년 6월 20일 원자바오 총리가 1982년에 만들어졌던 법안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당시 이 사건은 정보화시대 일반시민의 승리로 기록되었고 인터넷이 대중들이 말할 권리를 실행할 공간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과정을 좀더 살펴보면 처음 대중적 BBS Xici.net에 올려진 내용이 남방도시보라는 대중신문에서 심화된 보도로 확대되고 다시 인터넷상의 영향력 있는 논단들이 토론을 확대시켰다. 즉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촉발과 심화를 연계적으로 일으키는 수단이 되었으며 동시에 네티즌들의 토론을 통해 전국적 확산이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토론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들은 사회정의, 평등, 법제화, 인권, 입헌주의로 요약되는데 네티즌들의 다양한 생각의 표현과 논의가 인터넷의 공간에서 가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 기존의 농민공의 문제는 주목되지 못하다가 대학생 출신이 사망한 것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든지 논의의 내용도 근본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것 보다는 인권과 입헌주의, 법제화 등의 문제로 논의가 전개된 것을 인터넷 매체 공간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³⁶⁾ 즉 매체의 주도적 담론이 인권과 권리평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농민공의 근본적 발생원인인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의 문제나 연해경제의 자유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권리라는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담론이 형성된 것은 이미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영역이 평등을 담보한 대중의 민주화를 초래할 공간으로서가 아닌 시장논리를 형성 확산하는 영역일 뿐이라는 것이다.³⁷⁾

그렇다면 실제 논단에서 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터넷 토론 중 만들어진 용어인 “躲貓貓”, “欺實馬”는 활발한 논의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역시 합리적이고 평등한 토론이 진행되기 보다는 소수의 여론 주도층이 형성된다.

대형 포털사이트 網易의 뉴스댓글“新聞跟帖”은 사이트에 올려진 뉴스에 대해 네티즌이 평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네티즌간 소통과 여론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전통매체가 전달하는 뉴스가 일방적인 것이었다면 web2.0의 도움으로 서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 즉 정보의 전달이 한 방향에서 쌍방향, 다방향으로 확산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포털사이트 자체가 대중들의 공공영역 형성을 위한 인터넷 매체 기능에 상당부분 작용한다는 점이다. 뉴스평론의 기능을 둔 新浪, 搜狐, 騰訊 등 대규모 사이트와 달리 網易는 단순히 기술적 공간만을 제공하는데서 나아가 댓글을 달게 하므로 뉴스에 대한 네티즌의 심도있는 논의를 유도했다. 이점은 전통매체에서 할 수 없었던 인터넷 매체로서의 왕이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왕이 역시 공급하는 뉴스는 독자적 뉴스가 아니었다. 전통매체에 실린 뉴스를 전제 하도록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 매체는 전자게시판BBS와 블로그의 뉴스와 같은 뉴스의 정보자원은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뉴스로 실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

36) 汪暉, 앞의 책, 347쪽

37) 麦康勉(Barrett McCormick), 348-50쪽.

는 전통매체와 합작의 방식으로 네티즌과 뉴스의 직접적 연계를 맺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2008년 10월에 일어난 林嘉祥 사건과 관련된 뉴스였다. 이 사건의 최초 보도는 블로그 영상“男子猥褻11歲女童”을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소속의 奧一網이 소개한 뒤 網易가 올리면서 발생했는데 당시 뉴스가 올라온 시각은 두 매체에서 거의 동일했다. 왕이는 林嘉祥事件의 취재에 참여해 그 자료를 남방도시보에 제공함과 동시에 전제하여 50만이 넘는 클릭 회수와 2만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왕이는 이러한 뉴스의 경우 앞면에 게재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는 전통매체와 왕이와 같은 인터넷 매체가 상업적 목적에 의거해 정부의 통제 하에서도 대중의 공공영역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8년의 왕이에서 전개된 네티즌의 공공토론은 물론이고 네티즌들이 이름과 직책을 찾아내어 공개했고 심천 고위 간부의 부도덕성을 둘러싼 강도 높은 이성적 토론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09년의 네티즌이 주로 토론했던 사건들인 鄧玉嬌案, 杭州飆車案 등도 모두 왕이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즉 인터넷 매체는 BBS와 블로그에서 뉴스의 자원을 찾고 대중 매체와의 관계를 통해 대중이 토론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여 참여한 네티즌들의 활발한 논의를 추동해 내었고 그것은 다시 네티즌간의 논의의 확산을 통해 공공영역을 만들어 내어 국가권력과 정부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한 것이다. 전통매체의 뉴스는 전문가에 의한 편집방침과 취재로 이루어지지만 왕이는 클릭량과 댓글을 통해 뉴스를 결정하고 논의한다. 즉 “網易新聞48小時評論排行”에는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편집도 결정되므로 뉴스의 선정에서 일반 대중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매체는 전통매체에 비해 대중의 평등한 참여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공영역 형성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티즌이 논단, 뉴스댓글, 블로그 등에서 논의할 때 현실적으로는 여론의 지도층은 없고 동시에 네티즌 간에도 협상과 교류가 없이 혼자말만 하고 각자의 관점만 제시하며 대부분 개인감정의 정서만 표출한다.³⁸⁾ 따라서 익명의 상황에서 이성적 비판을 결여하고 언어폭력이 난무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비이성적 사고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 지식인의 참여나 여론 주도층의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⁹⁾

그런데 왕이(網易) 뉴스댓글의 대중토론을 보면 여론 주도층이 형성되는데 이는 매체 왕이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뉴스댓글 자체가 가치판단의 기준 하에 정렬된다. 왕이는 좋은 댓글의 기준으로 “독립된 사상을 지니고 공평정의를 내포하며 훌륭한 표현과 문장력을 갖춘 글”로 정한다. 그리고 블로그 보도 중점은 개인블로그인 “新聞下水道”, “163內閣”에 豆瓣小組와 QQ집단의 왕이뉴스댓글모음 등에 왕이 기준에 적합한 댓글을 소개한다. 그러므로 댓글가치판단의 표준을 거쳐 인터넷 매체의 대중토론이 가능한 댓글의 질량이 갖춰질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熱門跟帖”과“最新熱帖”에서 늦게 달렸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댓글은 네티즌이 바로 볼 수 있게 조치한다. 이 뿐만 아니라 뉴스댓글에서 老衲, 貧尼, 小李, 局長, 火星網友 등등 가상역할을 부여해서 다수의 네티즌의 객관적 토론도 유도한다. 즉 老衲과 貧尼는 약세군중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개 이들의 대응방식은 농담이나 유머, 참예한 비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小李는 정부의 순종적 기층관리원을, 局長은 관료를 대변하는데 고답적 표현 방식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게 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유도하며 독립적이고 현실풍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38) 袁光鋒, 앞의 논문

39) 劉國強, 袁光鋒, 2009

네티즌은 기존의 매체가 제공하지 못했던 논의의 장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인터넷 매체가 제공하는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적 환경에 놓인 인터넷 매체의 적극적 관여의 조치로 네티즌의 주된 관심사를 가장 잘 이슈화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역시 전통매체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검열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다. 網易審核組는 뉴스댓글의 내용을 삭제하고 통제한다. 이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관건사 여과 방식에 따라 자동삭제되거나 직접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대중들의 불만이 초래된다.⁴⁰⁾ 그러므로 공공영역의 형성은 국가권력과 조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는 대중매체와의 연계, 매체의 여론형성 기제로 여론을 이끌어 나갈 뿐 아니라 인터넷 매체간의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으로 까지 공공영역의 공간을 더 확대시켜 나갔다. 2007년 華南虎사건(타이거게이트 사건)은 산시지역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의 사진이 전시회에 등장한 사건을 놓고 벌어진 진실성을 찾는 논쟁으로 天涯BBS에서 조작설이 네티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사이버 공간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러 상업포털 Netease, 티엔야(天涯), 바이두(百度) 포스트 바 등에서 토론포럼이 운영되었고 대중들의 다양한 주장이 전개되어 인터넷이 대중소통의 공공장소로서 중국인의 삶과 세계관을 변화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오프라인 세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북경의 법학전문 출신의 시민이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사실적 정보를 들을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 북경인민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의 법적권리의 문제뿐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정부의 세금납용문제는 Netease.com의 주도로 온라인 상 투표도 전개되는 등 시민의 권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시작된 사회적 사건인 周老虎事件, 躲貓貓事件, 杭州飆車案, 鄧玉嬌案, 韓局長事件 등 인터넷이 유발한 대중의 논의가 증폭되는 과정 속에 지식인들의 심층분석과 논의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사건의 시작은 대개 네티즌의 소개로 이루어지고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지만 이러한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심층분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 지식인들은 전통 대중 매체에서 평론의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네티즌들은 이에 영향을 받고 지식인들도 온라인상의 토론에 참여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상적 토론으로 진행해 나갔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변화시키게 되는 방식이었다.⁴¹⁾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영역은 대중의 평등한 토론과 참여가 가능한 다원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소위 공공지식인의 등장과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중국의 인터넷 공공영역에서 지식인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대중의 평등한 참여를 제어하는 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공지식인이 공공여론을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⁴²⁾ 공공지식인의 개념 역시 서구에서 들여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전문영역을 넘어 공공매체나 논단에서

40) 胡茵茵, 「網絡新聞評論：媒介建構與公共領域生成——對網易“新聞跟帖”業務的研究」, 人民網-傳媒頻道, 2010年03月30日14:12

41) 史鬆明, 袁光鋒, 「五個過程的敘述參見」, 2011.

42) 王妍, 앞의 논문, 6쪽

43) 미국철학자의 1987년 <최후의 지식인>이란 책에서 처음 제기된 용어로서 능력을 갖추고 대중에게 대중을 위해 대표하고 표현하는 개인으로서 정치와 의식적 공공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지식인이라고 불렀다.

사회대중이 관심을 지닌 사회논쟁점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대중에게 제공하여 사회의 관심을 받는 지식인을 의미한다.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매체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여론지도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들은 엘리트적 태도를 버리고 보통대중의 신분으로 의견을 표현, 공공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의 입장이 점차 여론의 방향에 영향을 주면서 사건의 해결에서 법제화까지 가게 되므로 이들의 공공영역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인은 주로 두 가지 경로로 공공영역의 형성 활동에 참여한다. 하나는 공적의제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중을 계몽하는 것이다. 대중의 참여능력과 의식이 박약한 중국에서는 이러한 공공지식인이 참여자와 계몽자로서의 이중신분을 통해 공공영역을 형성해 나간다.

공공지식인은 학술회의는 물론이며 각종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블로그나 논단에 참여하지만 공공영역의 형성 주체로서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의 서평과 평론의 형태로 참여할 때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 대중신문인 남방도시보에는 경제학, 법학, 정치학, 역사학, 철학 등의 지식인이 참여하고 있고 신문은 대중의 계몽을 지향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2004년에서 2009년 12월까지 시평 2,937편은 경제학, 역사, 문학, 법률 학자와 정치학, 철학, 미디어 등의 전공자, 대중매체 종사자 등이 기고를 했다. 대개 신문매체는 전문학자의 기고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남방도시보는 전문성을 가장 중시한다고 표방한다. 시평의 글을 그 주요한 내용을 범주화 하여 분류해 보면 시장경제, 정부의 정책과 운용, 교육, 국제외교, 공민관념과 행위, 공민권리, 공공정책, 법률문제, 문화, 체육, 매체나 인터넷, 환경과 동물보호, 대만문제로 나뉘어 지며 그 비중도 시장경제의 운용문제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전문가와 대중, 매체가 주요하게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점차 중요시 되는 내용은 공민권리, 공민관념과 행위, 문화체육, 매체와 인터넷이라는 점에서 공공지식인의 관심이 대중의 관심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⁴⁴⁾

이러한 공공지식인의 중국사회에서의 출현은 손지강 사건에 참여한 법학학자로 주목되기 시작했고 2004년 남방인물주간은 공공지식인을 선정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공공지식인의 선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지식인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활동 영역은 2009년 이후에는 인터넷 매체에서 직접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러므로 공공지식인이 공공영역에서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매체 통제와 관리의 상황 속에서 상업화 시장화된 매체가 대중의 적극적 호응과 관심에 부합하기 위한 과정에서 독립된 공공영역을 매체가 중심이 되어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 매체의 대중참여의 확대는 지식인의 계몽과 참여의 이중적 역할을 필요하게 했다. 2007년 블로그의 중국 도입이 이러한 현상을 더 강화시켜나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론의 형성에서 주도권이 점차 대중에서 다원적 엘리트화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⁵⁾ 블로그가 중국에 도입되면서 전문적 지식인이 직접 대중과 소통하게 된 것이다.⁴⁶⁾ 그리고 이러한 소수 지식인들의 여론 주도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것이 2012년 초 方舟子의 漢韓 폭로 사건이다. 즉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가치와 개인의 사상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인터넷 여론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지도되고 다수민중이 이끌려 가는 상태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⁴⁷⁾

44) 王妍, 앞의 논문, 29쪽

45) 杜慶杰, 『博客初探』, 安徽教育出版社, 2008.

46) 余越, 李名亮, 「微博空間公共知識分子的身分建構」, 『今傳媒』, 2012年 9期.

이외에도 과거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참여가 미약했던 약세군체의 참여가 활성화 되면서 보다 개방적인 온라인 공간의 형성이 기대되고 있다.⁴⁸⁾

5. 맺음말

중국에서 공공영역의 논의는 중국사회의 변화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하버마스의 논의를 들며와 중국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사회에 적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지만 이미 변화된 중국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는 이념틀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외래의 개념이며 중국사회에 맞지 않을지라도 중국사회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며 중국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비판적 잣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사회와 동일시 되었지만 시민사회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 논의의 구체적 과정과 수단으로서의 매체의 역할,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중과 지식인의 관계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이끄는 논의가 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 매체는 국가 통제와 관리의 제한 속에 놓여 있지만 시장화와 상업화의 메커니즘에 따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선도하는 작용을 통해 국가와의 관계에서 공공영역을 형성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 또한 2000년대 이래 전통적 대중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의 담론 확산의 공간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국가와 정부에 대한 대항담론의 형성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지식인의 역할이 주목되는데 중국의 공공영역이 국가에 대한 독립적 영역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이 여전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대중에 대한 계몽과 참여의 이중적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中国互聯網信息中心, 『中国互聯網發展狀況統計』, 1998, 1999, 2000, 2001.
信息產業部, 『互聯網電子公告服務管理規定』, 2000.
曹衛東, 「走進公共領域」, 『讀書』, 1999年 第2期.
張掬嬰, 「網絡伝媒与話語權的變遷」, 『浙江統計』, 2007年第4期.
展江, 「哈貝馬斯的公共領域理論与伝媒」, 『中国青年政治学院学报』, 2002年第3期.
胡茵茵, 「網絡新聞評論: 媒介建構与公共領域生成——对網易“新聞跟帖”業務的研究」, 人民網-伝媒頻道, 2010年03月30日14:12
成度, 「有関市民社会与公共領域的論争」, 『二十一世紀双月刊』 総第88期, 2005年 4月号
北京市公安局, 『關於加強計算機信息系統國際聯網備案管理的通告』, 1996.
閔大洪, 「“一種媒介, 多種声音”与“多種媒介, 一種声音”——因特网(Internet)挑戰中国大陆新聞伝媒」, 『亞洲新聞伝播与社会變遷研討会論文集』, 香港: 浸会大学, 1998.
潘忠党, 「大陸新聞改革過程中象征資源之替換形態」, 『新聞学研究』 第54集, 頁111-139, 1997.
唐小兵, 「公共知識分子与公民知識分子」, 『南風窗』, 2004-10-1.
朱蘇力, 「公共知識分子的社会建構」, 『天涯』, 2004.

47) 羅坤瑾, 網絡輿論与中国公共領域的建构, 學術論壇, 2010年05期

48) 王彥超, 任春曉, 關於網路電波時代活語權問題的思考, 今傳媒, 2009. 6,

- 陳麗平,「公共領域在傳媒時代存在的可能性」,『當代傳播』,2006.
- 祝佺鵬,宋桂敏,「網絡公共領域建構的優勢及存在問題分析」,『魅力中國』,2009.
- 李琿,「論微博客公共領域的建構」,『東北師範大學』,2010-06-01.
- 章玉政,「從公共領域到公共討論——試析“方舟子韓寒之爭”引發的公眾傳播現象」,『新聞界』,2012-03-20.
- 劉心一,「公共領域視域下的社會大眾主流價值觀研究」,『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2-07-30.
- 司林波,「網絡話語權的公共領域特征與話語民主的實現」,『陝西行政學院學報』,2012-05-20.
- 全菲,「從時間變遷看報刊構築公共領域的變化——以『大公報』『星期論文』和『南方周末』評論版為例」,青年記者,2011-09-20.
- 袁琳娜,「『南方周末』與公共領域建構——以『南方周末』三次轉型為線索」,新聞世界,2011-08-10.
- 石登,「國內學界關於公共領域的研究綜述」,『新聞世界』,2011-08-10.
- 王曉升,「“公共領域”概念弁析」,『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11-07-24.
- 王妍,『我國公共知識分子與公共領域建構研究』,暨南大學,2010-04-01.
- 陸奕菁,『傳統媒體在網絡公共領域中的作用研究』,上海外國語大學,2009-06-30.
- 張美玲,羅憶,『以微博為代表的自媒體傳播特點和優勢分析』,湖北職業技術學院學報,2011(01).
- 侯小杏,張茂偉,『微博在教學應用中的傳播模式研究[J]』,琼州學院學報,2011(04).
- 李弋,『微博對傳媒生態的改變』,廣州廣播電視大學學報,2011(02).
- 殷俊,何芳,『微博在我國的傳播現狀及傳播特征分析』,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1(03).
- 曾凡斌,「中美博客發展之政治、經濟、文化環境的比較探討」,『江淮論壇』,2006(01).
- 乃風,「互聯網“三個火槍手”話新媒體傳播」,『國際公關』,2005(05).
- 于陽,「大學生使用微博原因初探」,『新聞世界』,2011(05).
- 袁靖華,「微博的理想與現實——兼論社交媒體建構公共空間的三大困擾因素」,『浙江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0(06).
- 鄧曉軍,「微博——需要你親身感受的力量」,『青少年日記』,2010(05).
- 郭樹潤,「淺談微博對公共事務的影響」,『南方論刊』,2011.
- 陳立強,羅紅輝,『互聯網微博的話語機制及傳播信用』,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2年05期.
- 張明新,「互聯網時代中國公眾的政治參與:檢驗政治知識的影響」,『中國地質大學學報(社會科學版)』,武漢大學新聞與傳播學院,2011-11-15.
- 范玉剛,「新媒體與網絡空間的文化表達」,『中共中央黨校文史部』,探索與爭鳴,2012-03-15.
- 程新平,「互聯網負性思想情緒的類型、特征及成因」,『教育理論與實踐』,重慶師範大學政治學院,2012-04-25.
- 張玉婷,「互聯網中的交往與空間設計」,『硅谷』,北京理工大學設計與藝術學院,2010-04-23 041
- Dahlgren, P.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Citizenship, democracy and The media*. Sage Publications Inc, 1995.
- Zhao, Y. *Media, market, and democracy in China: Between the party line and the bottom line*.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1998.
- Zhou, Y. (2006) *Historicizing Online Politics: Telegraphy, the Interne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Zhan Li, Will the Internet Form the Public Sphere in

China?, SYSTEMICS, CYBERNETICS AND INFORMATICS VOLUME 2 - NUMBER 2

Chunzhi Wang, Benjamin Bates, *Online Public Sphere and Democracy in China*, 2008.6

Dahlberg, L. (2001).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sphere: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7(1).

Gang Luo (2007). *The Internet in China: A Force for Democracy or Oppression?* A Lecture in UCLA.

Li Xiaoping (2002). 'Focus' (Jiaodian Fangtan) and the Changes in the Chinese Television Industr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1(30), 17-34.

Yongnian Zheng and Guoguang Wu (2005). Information Technology, Public Space, and Collective Action in Chin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005; 38(5); 507-536.

Chinese lawmakers from "paper tiger" home province say will push for photo authentication. Xinhua. March 04, 2008